

다문화가정 어머니 문화적응의 종단적 변화 -교차지연 패널 네트워크 모형 (Cross-lagged Panel Network Model)의 적용-

한승희 · 유금란*
(가톨릭대학교)

1. 서론
2. 연구 방법
 - 2.1. 연구 대상
 - 2.2. 측정 도구
 - 2.3. 분석 절차
3. 연구 결과
 - 3.1. 표본 특성
 - 3.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종단적 문화적응 네트워크
 - 3.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행동별 기대영향
4. 논의 및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Berry(1997: 9-12)의 이론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을 개별 행동 수준에서 세밀하게 종단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 2기 1·2차(2019, 2020) 원시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적응 유

* 제1저자: 한승희, 교신저자: 유금란

형 응답을 추출하고 교차지연 패널 네트워크(CLPN) 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1차년도 문화적응 행동은 2차년도에도 Berry의 유형을 비교적 공고하게 유지한 채 서로 종단적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드별 기대영향(EI)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주변화를 반영하는 “종종 한국사람과 모국사람에게 모두 이해받지 못한다”가 2차년도의 문화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간 경직된 유형적 접근으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미묘한 문화적응 전략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세밀하게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함의점 및 제한점과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네트워크분석, 종단분석

1. 서론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출산율을 잡겠다고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¹⁾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16년도부터 줄곧 감소해 오다가 지난 2024년 2분기 합계 출생아 수 5만 6838명을 기록하여 무려 8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적 감소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통계청 2024).²⁾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한국의 고령화 문제, 축소 사회로의 이전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의 소멸이라는 비관적 분석도 나오는데, 1970년대 이촌향도 현상을 시작으로 지난 50년 동안 이어진 한국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국토 면적의 11.8%만을 차지하는 지역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그마저도 비수도권 지역 연령대별 인구비는 2015년도부터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역전한 상태이다(구양미 2021: 304). 지방의 생산인구 감소는 지방의 일자리 부족 현상과 낙후된 인프라를 더욱 가속하며 현재까지 이렇다 할 회복을 보이지 않

1) 서울경제(2024.06.22.). ‘육아휴직급여 250만원·특공1+1’… “돈 준다고 애 낳나”[송중호의 쏙쏙통계]. <https://www.sedaily.com/NewsView/2DAK9M59YP> (검색일: 2025.08.29).

2) 통계청(2024.08.28.), 2024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아 대책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 및 경인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은 사정이 나은 것으로 보이나, 인구의 유지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가장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출산율이 서울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5명대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기예(통계청 2024)³⁾ 저출산 문제는 일부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위기로 보아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유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20년 203만 명 수준에서 2023년 265만 명을 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정부가 주도하는 이민청의 신설과 함께 더 크게 늘어갈 전망이다.⁴⁾ 이민 인구 증가로 인한 다문화 담론의 확산은 앞서 1990년대에 우리나라 농촌을 중심으로 전개된 바 있다. 그 당시 한국인 남성들이 결혼 상대를 찾기 어려워지자 지자체 지원을 통한 국제결혼이 활황을 이루었는데, 이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 또는 몽골에서 온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가하게 되며 이를 교두보 삼아 우리나라의 다문화 담론이 전개되었다(전경숙 2017: 402; Park 2022: 51). 전체 혼인 건수 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현재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아내가 다문화 혼인 유형의 6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져(통계청 2024)⁵⁾ 한국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이루어진 가정의 형태는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이처럼, 국가 주도의 이민 정책 강화와 더불어 국내의 국제결혼 혼인 건수 증가세를 미루어 볼 때 전체 혼인 건수 대비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구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자기의 문화권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주국으로

3) 통계청(2024.08.28.), 2023년 출생 통계.

4) 동아일보(2025.05.24.). '내 아이가 살기 어려운 나라'에 이주할 부모는 없다[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523/131669097/1> (검색일: 2025.08.31).

5) 통계청(2024.11.07.),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이주하는 상황은 언어와 제도, 사회적 관계망에 적응할 것이 요구됨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를 경험할 수 있다(염동문 2019: 275-277; 임양준 2017: 83). Berry(1997: 13)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해 “문화적 적응과정을 겪는 개인이 기존 문화와 새로운 문화 간의 차이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반응적인 스트레스”로 보았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경제적 목적, 더 나은 삶의 획득을 목표로 국제이주를 감행하였기에 전통적 성별 분업에 순응하기를 원하는 한국 남성과 그 가족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되어 이주해 온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것을 요구받는다(김현숙 · 김옥녀 2017: 158). 실제로,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시행된 다문화 정책은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의 모국 문화를 배격하고 새로운 정주국인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될 것을 강조해 왔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이화선 2015: 8).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의 아내이기 이전에 이민자로서 정주국에서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는 적극적 행위자이자 그와 동시에 어머니이자 노동자, 시민과 같이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다(김현미 2006: 17).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출신국의 정체성만 고수하거나 한국의 정체성에 그대로 동화된 자로 대하는 것보다는 모국과 한국 사회 양측에서 형성한 혼재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이중문화 정체성’을 보유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김현숙 · 김옥녀 2017: 159).

Berry에 따르면,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한 문화나 사회에서 다른 문화나 사회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적응은 다시 두 개 차원으로 나뉘어 사회 구조와 민족적 공동체, 제도에 대한 적응을 의미하는 문화적 적응, 그리고 새로운 언어, 태도나 정체성, 그리고 새롭게 생성된 사회적 관계 형성과 관련된 심리적 적응으로 나뉜다(Berry 1997: 13-14; Berry 2016: 16-17). 문화적응에 관한 Berry의 개념적 틀에서 개인은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정주국 사회와 접촉하고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나뉘는 두 가지 차원을 통해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통합(integ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

다. 개인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지 않고 다른 문화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것은 동화 전략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면서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분리 전략으로 지목된다. 또한,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집단과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데 관심을 쏟으면 통합 전략으로 간주되며, 마지막으로, 문화적 배경의 유지나 적응에 관심이 없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도 거의 관심이 없을 경우 주변화 전략으로 기술될 수 있다(Berry 2016: 24).

Berry가 제안한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개념적 틀로 활용되었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통합적 유형을 보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더 낮으며(임은미·정성진·이수진 2010: 964-967), 특히 분리 또는 주변화 유형을 보이는 결혼이주여성은 이 외 문화적응 유형에 비해 더 많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염동문 2019: 274)와 우울감(Choi·Miller·Wilbur 2009: 17-18)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잠재프로파일분석(LPA)과 같은 기법을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과정을 자료 중심적 접근에서(data-driven) 보다 사람 중심으로 탐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Ren 외(2021)는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계 및 한국계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각각 정주문화와 모국의 문화에 대한 동화, 분리, 미분화로 나뉘는 새로운 프로파일을 제시하였고, Tahseen 외(2012) 역시 이와 비슷하게 미국 내 거주 중인 중국계 이민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리적-행동적 차원의 통합, 동화, 분리, 그리고 미분화 유형의 네 가지 유형을 확인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현과 이경원(2021)이 한국에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동화/통합형, 분리형, 소외형의 세 가지 프로파일 유형을 밝혀낸 바 있다.

그러나, Berry의 개념적 틀을 차용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여전히 유형화된 결과를 끌어내는 데 그쳐 이주민이 기울이는 미묘한 문화적응적 전략이 잘 반영되지 않고, 그 특성을 살펴보는 방식 또한 유형 간 차이검증에 그친 탓에 인과적 관계 검증까지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

다(이형하 · 윤진미 · 한지윤 2021: 454). Berry의 유형적 접근방식은 이주민의 문화적응 관련 분야에서 널리 채택되어 온 유용한 개념 틀이지만, 문화적응이 지닌 역동적 특성을 단순화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Schwartz · Unger · Zamboanga · Cordova · Mason · Huang · Baezconde-Garbanati · Blanco · Rosiers · Soto · Villamar · Pattarroyo · Lizzi · Szapocznik 2010: 727). 그간 선행연구에서는 이주민을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 중 하나로 구분하기 위해 전체표본의 유형별 중앙값을 임의의 절단점으로 설정해 개인의 점수를 높고 낮음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채택되어 왔으나, 이 같은 방식은 점수의 높고 낮음을 가르는 절단점이 표본마다 달라 연구 간 비교가 어렵고, 실제로는 이주민이 여러 유형을 복합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Coatsworth · Maldonado-Molina 2005: 159; Giang · Witting 2006: 736). 또한, 단지 한 시점에 측정된 문화적응 전략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화적응적 행동의 변화를 포착해내지 못할 수 있다. 문화적응은 개인이 환경과 접촉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며 발전하고 변형되는 과정으로서(Berry 2005: 701) 횡단적 접근만으로는 단일 시점의 정적인 문화적응 수준을 포착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연속적이고 진화하는 문화적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Silva · Pereira, 2023: 14). 관련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을 종단적 분석방법을 적용해 발달 궤적을 살펴보는 시도가 국내외에서 이루어졌으나(이형하 · 윤진미 · 한지윤 2021; Park 2022), 이는 여전히 Berry의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이 보일 수 있는 문화적 및 심리적 적응을 위한 노력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면, 한국에 결혼 이민을 온 여성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Berry의 문화적응 유형 틀을 넘어 종단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문화적응 과정 동안 도전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전경숙 2017:

409), 본 연구에서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적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확대될 이민 사회에서 이들의 발달 과정에 기반한 함의점을 끌어내고자 하였다. 이때 문화적응적 ‘행동’이란 용어의 사용은 이주민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려는 전략을 네 유형으로 제안한 Berry(1997; 2005; 2016)의 이론에 근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 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모국인들보다 한국인과 더 잘 어울리거나, 거리를 두거나, 또는 모국인과 한국인들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는 상태를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저마다 채택한 주도적인 행위로 바라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를 둔 국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문화적응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적응적 ‘행동’들을 두 시점에 걸쳐 포착하여 1년 전의 문화적응적 행동이 1년 뒤의 문화적응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주도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차지연 패널 네트워크(Cross Lagged Panel Network: CLPN) 모델을 채택하였다. CLPN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동 간 상호작용 및 변화양상을 추적하는 데 강점을 지닌 방법으로, 이를 통해 표본에서 추출된 임의의 절단점을 유형의 분류 기준으로 택했던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네 가지 유형적 틀에서 벗어나 어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경험한 문화적응 과정이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 및 발달하였는지 구체적인 행동 차원에서 세밀한 탐색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erry의 문화적응 유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하되 한 유형이 다른 유형에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가정하기 보다는 각 유형을 구성하는 행동들이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재편되고 재조직화될지 탐색하고, 그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Berry의 이론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적 행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Berry의 네 가지 유형에 고정적으로 머물지 않으며,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적응적 행동들을 혼재된 형태로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다양한 문화적응적 행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로 종단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즉, CLPN 분석을 통해 어느 특정한 행동이 다른 행동들에 정적이거나 부적인 효과를 미치는 교차지연(cross-lagged) 효과가 탐색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9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구축된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2기 패널 자료 중, 제2차년도(2020년)와 제1차년도(2019년) 어머니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로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4학년은 고학년이 되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로부터의 독립 시도와 또래집단 문화를 형성하는 시기이자(장희선 2023: 71) 본격적인 사춘기에 접어드는 중학생 시기 정서·행동 문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달적 전환기로 알려져 있다(강지현 2014; 장희선 2023). 이러한 발달적 특성은 특히 한국 문화에 적응해 가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에게 자녀 양육의 심리적 부담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라는 이중고를 부과하여 도전적인 과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경숙 2017: 409). 이러한 연유로 본 연구에서는 공개된 가장 최신 자료인 MAPS 2기 패널 제1,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MAPS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관 하에 지난 2011년부터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9개년에 걸친 종단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223명이 조사

에 응한 2019년도 자료와 2,054명이 응답한 2020년도 자료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국제결혼가정 대상자의 자료를 선별하여 이 중 1차년도와 2차년도의 문화적응 설문에 모두 성실하게 응답한 1,544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을 종단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2.2. 측정 도구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데이터의 1차년도와 2차년도의 문화적응유형 조사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화적응유형은 다문화청소년패널 구축에 참여한 연구진이 Berry(2001)의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을 변안한 뒤 수정 및 축약한 것으로, 총 12개 문항으로서 3개 문항이 하나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전체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의 경우, “나는 모국사람들보다 한국사람들과 더 잘 어울린다”는 진술이 포함된 동화 척도, “나는 한국인 친구와 모국인 친구가 모두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통합 척도, “나는 한국사람들보다 모국 사람들이 나를 더 동등하게 대해준다고 느낀다”가 포함된 분리 척도, 그리고 “나는 한국인이나 모국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와 같은 진술로 구성된 주변화 척도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평정하는 Likert 척도이다. 제1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Cronbach’s α 를 확인한 결과, 동화 척도=.828, 통합 척도=.767, 분리 척도=.742, 주변화 척도=.870, 그리고 총 척도=.753의 값을 보였다.

2.3. 분석 절차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서 나타나는 문화적응의 종단적 변화를 개별 항목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해 교차지연 패널 네트워크(CLPN)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CLPN 모델은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이라고도 불리는 네트워크 분석에 배경을 두고 있다.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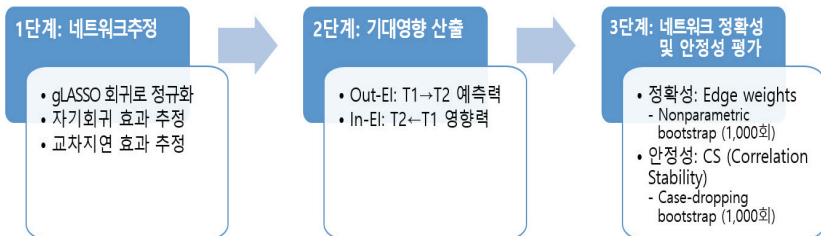
트위크 분석의 주요한 특징은 분석의 대상이 특정한 행동이나 진술문과 같이 개별 항목(items)이라는 점인데 예를 들어, 잠재변수인 ‘외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또는 “파티를 즐긴다” 등의 항목이 사람들의 외향성을 구성하는 동시에 외향성이 이 같은 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는 반면, 네트워크 분석적 접근에서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나 파티를 즐기는 등의 항목이 각각 별개의 영향을 주고받을 것으로 가정한다(Wysocki · Rhemtulla · van Bork · Cramer 2022: 3). 이처럼, 네트워크 분석은 서로 관련 있는 요소들을 개별 항목 차원에서 살펴보고 요소 간 관계성을 통해 전체적인 연결망을 그린 뒤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둔 접근법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CLPN 모델은 크게 세 개 절차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요약된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첫 번째, Funkhouser 외(2021) 및 Zainal과 Newman(202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향하는 종단적 네트워크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행동 간에 작거나 드문 관계가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gLASSO(graphical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회귀를 통해 0으로 정규화 하여 자기회귀(autoregressive) 효과(예. 1차년도의 측정치가 동일한 항목의 2차년도 측정치를 예측하는가) 및 교차지연(cross-lagged) 효과(예. 1차년도의 측정치가 다른 항목의 2차년도 측정치를 예측하는가)를 추정하였다. 두 번째, 추정된 종단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들이 지니는 기대영향(Expected Influence: EI)을 산출하였다. 여기서 ‘노드’란 네트워크 분석에서의 개체를 의미하고, 기대영향이란 어느 한 노드가 연결된 다른 모든 노드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데 CLPN 모델에서의 기대영향은 T1 시점의 특정 노드가 T2 시점의 다른 노드들을 얼마나 예측하는지(Out-EI), 그리고 T2 시점의 특정 노드가 T1 시점의 다른 노드들에 의해 얼마나 예측되는지(In-EI)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 번째, 이렇게 추정된 네트워크의 정확성(accuracy)은 엣지 가중치(edge weights)를 non-parametric 방식의 부트스트랩(iteration=1,000)을 사용하여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해 정확한 추정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으며(Shang · Bian · Luo · Lv · Wu · Lv · Wei 2024: 62), 추정된 네트워크의 안정성(stability)은 case-dropping 방식의 부트스트랩(iteration=1,000)을 사용해 산출된 상관안정성(correlation stability: CS)을 통해 결정되었다. 이때, 해석이 권장되는 CS 임계치는 .25이상이고, .50이상일 때 안정으로 해석 가능한 것으로 본다(하혜주 · 심은정 2019: 259; Epskamp · Borsboom · Fried 2018: 200).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spring’ 알고리즘(Epskamp · Cramer · Waldorp · Schmittmann · Borsboom 2012)을 사용하여 서로 연관된 노드는 인접한 곳에 배치되고 관련이 적은 노드는 멀리 떨어지도록 구현하였으며, 임의의 두 노드 사이를 잇는 엣지의 색상과 두께는 정적/부적 상관 및 상관의 크기를 표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R 프로그램 4.3.1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네트워크의 추정과 정확성 및 안정성 분석에 *glmnet*(Friedman · Hastie · Tibshirani 2010) 패키지, *bootnet*(Epskamp · Fried 2015) 패키지가 사용되었다. 네트워크 시각화에 *qgraph*(Epskamp · Cramer · Waldorp · Schmittmann · Borsboom 2012) 패키지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관련 있는 노드를 가깝게 배치하도록 설정하였으며, 두 노드 간 편상관(partial correlation)이 크고 적음에 따라 그 두 노드를 잇는 엣지의 두께가 굵거나 가늘게, 엣지의 색상에 따라 양적(초록색) 또는 부적(붉은색) 관계를 나타내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1〉 교차지연 패널 네트워크(CLPN) 분석 절차 도식

3. 연구 결과

3.1. 표본 특성

1차년도(2019년) 자료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돌보는 1,544명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7.14세였으며, 69.7%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 중이고 출신국가는 응답자의 절반의 가까운 42.4%가 베트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6.4%가 사무와 농림어업 등을 포함한 근로활동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나 학생 또는 주부의 비율은 23.6%에 그쳤고, 최종 학력은 고졸이 43.8%로 가장 많았던 한편, 중졸 이하의 학력이 34.9%로 나타나 그 뒤를 이었다. 한국어 수준은 말하기, 쓰기, 읽기, 그리고 듣기를 포괄하여 3.22(SD=.90; 쓰기)부터 3.81(SD=.80; 듣기)까지 범위를 보여 '중간이다'부터 '잘하는 편이다'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술통계 결과

구분		빈도, 평균 (%, 표준편차)
연령		37.14 (5.50)
거주지역	서울	130 (8.4%)
	경인	338 (21.9%)
	충청 및 강원	296 (19.2%)
	경상	451 (29.2%)
	전라 및 제주	329 (21.3%)
출신국가	중국(한족, 조선족 및 기타)	527 (27.6%)
	베트남	655 (42.4%)
	필리핀	165 (10.7%)
	기타 ^{a)}	297 (19.3%)
학력	중졸 이하	539 (34.9%)
	고졸	677 (43.8%)

구분		빈도, 평균 (%, 표준편차)
	대졸(2-3년제)	151 (9.8%)
	대졸(4년제) 또는 대학원 졸	177 (11.5%)
직업	사무/서비스/판매	312 (20.2%)
	기계조작 및 조립	245 (15.9%)
	농림어업/기능원	225 (14.6%)
	직업 외(주부, 학생)	398 (23.6%)
	기타 ^{b)}	364 (23.6%)
한국어 수준 ^{c)}	말하기	3.70 (0.76)
	쓰기	3.22 (0.90)
	읽기	3.56 (0.84)
	듣기	3.81 (0.80)

주: ^{a)}일본, 태국, 기타 국가; ^{b)}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업, 단순노무, 군인, 직업구분 불가;
^{c)}Likert 5점 척도로, 1점("전혀 못한다")부터 5점("매우 잘한다")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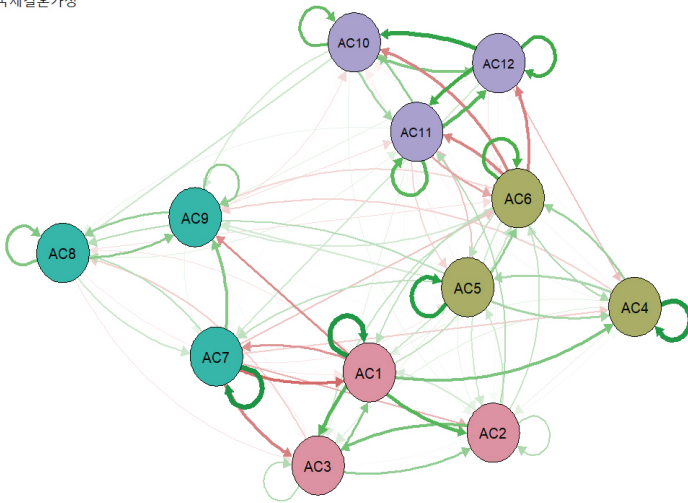
3.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종단적 문화적응 네트워크

다문화가정 어머니 문화적응의 발달 궤적을 확인하고자 교차지연 패널 네트워크(CLPN)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차년도의 문화적응적 행동이 어떠한 형태로 2차년도의 문화적응적 행동을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의 12개 노드들은 각각 Berry의 문화적응 유형을 측정하는 12가지 문항과 대응되며, 노드의 색상은 각각 동화(분홍색), 통합(갈록색), 분리(청록색), 그리고 주변화(보라색) 유형에 속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AC1, AC2, AC3은 동화 유형에 속하는 문항들로 각각 “나는 모국사람들보다 한국사람들과 더 잘 어울린다”, “나는 모국사람들보다 한국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다”, “나는 모국사람들보다 한국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더 편하다”를 뜻한다. AC4, AC5, AC6은 통합 유형에 속하는 문항들로 각각 “나는 한국인 친구와 모국인 친구가 모두 있다”, “나는 한국사람들과 모국사람들 모두 나를 귀중히 여긴다고 느낀다”, “나는 한국사람이든 모국사람이든 누구와 함께 있어도 매우 편안하다”를 의미한다. AC7, AC8,

AC9는 분리 유형에 속하는 문항들로 “나는 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국사람인 모임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나는 한국사람들보다 모국사람들이 나를 더 동등하게 대해준다고 느낀다”, “나는 한국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모국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편하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AC10부터 AC12는 주변화 유형에 속하며, 순서대로 “나는 한국인이나 모국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한국사람이나 모국사람이나 모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낀다”, “나는 종종 한국사람들이나 모국사람들 모두 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한다”를 의미한다. 노드 사이를 잇는 화살표는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향하는 종단적 효과를 의미하며, 두께가 굵을수록 효과가 큰 것을 의미한다.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를 향해 쏠려 나가는 화살표는 교차지연(cross-lagged) 효과를 나타내는 한편,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화살표는 자기회귀(autoregressive) 효과를 의미한다. 두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특정한 문화적응적 행동이 이듬해의 같은 행동에 정적이거나 부적인 영향을 주는지와 더불어 다른 행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네트워크를 살펴본 결과, 우선 Berry의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에 호응하는 형태로 노드들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 유형에 속하는 노드들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었으며 이러한 패턴은 다른 세 유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서 혼재된 유형의 문화적응적 행동방식이 나타난다기보다는, 동화적 행동이나 주변화된 행동과 같이 특정 유형에 속하는 행동들이 주로 관찰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문화적응적 행동은 시간의 경과에도 어느 특정한 유형의 모습을 비교적 공고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



〈그림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T1→T2 종단적 문화적응 네트워크

다음으로는 교차지연 효과와 자기회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종단적 문화적응 네트워크에서 가장 강한 교차지연 (cross-lagged) 효과를 보이는 노드 쌍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 결과, 주변화 유형에 해당하는 노드12(“나는 종종 한국사람들이나 모국사람들 모두 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한다”)가 마찬가지로 주변화 유형인 노드10(“나는 한국인이나 모국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을 가장 잘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d=.191$). 이는 곧 한국인과 모국인 모두 나를 이해하는데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이듬해에 한국인과 모국인 모두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뒤를 이어 노드12가 주변화 유형인 노드11(“나는 때때로 한국사람이나 모국사람이나 모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낀다”)을 예측하는 경우 ($d=.175$), 노드11이 노드12를 예측하는 경우($d=.149$)가 강한 교차지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상위 세 노드 쌍이 모두 주변화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세 유형들에 비해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T1→T2 방향성 엣지 가중치
(Directed edge weight: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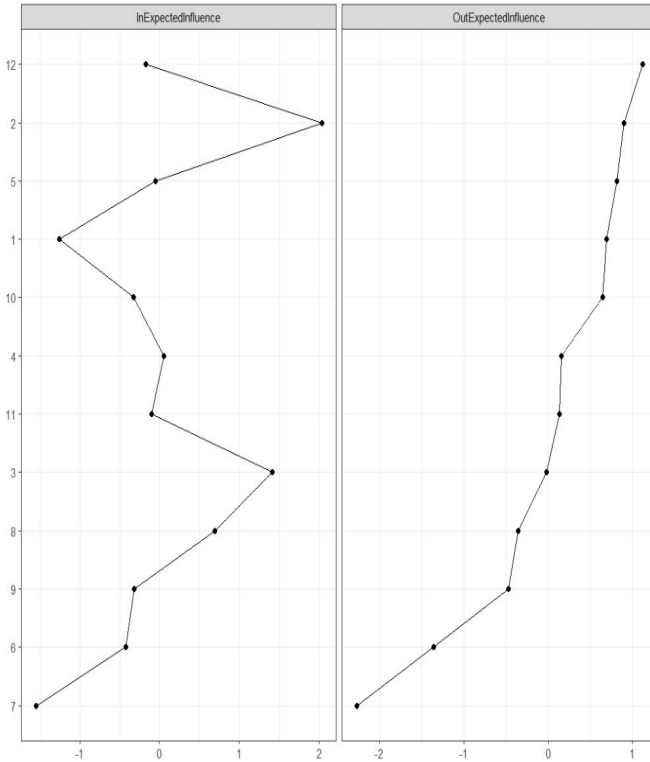
노드 방향	d	노드 방향	d	노드 방향	d
12 → 10	0.191	1 → 5	0.041	11 → 4	-0.009
12 → 11	0.175	2 → 5	0.040	4 → 10	-0.012
11 → 12	0.149	6 → 2	0.039	5 → 10	-0.014
1 → 2	0.148	12 → 7	0.038	10 → 6	-0.017
1 → 3	0.147	5 → 9	0.038	3 → 7	-0.019
2 → 3	0.118	9 → 6	0.038	8 → 1	-0.021
1 → 4	0.113	10 → 9	0.034	7 → 5	-0.022
10 → 12	0.108	2 → 1	0.034	12 → 6	-0.025
7 → 9	0.106	4 → 3	0.031	8 → 3	-0.028
3 → 1	0.105	11 → 3	0.026	1 → 8	-0.028
8 → 9	0.102	12 → 9	0.025	8 → 6	-0.030
11 → 10	0.097	4 → 2	0.025	9 → 10	-0.031
5 → 6	0.097	8 → 11	0.024	9 → 11	-0.034
3 → 2	0.093	5 → 3	0.024	6 → 9	-0.035
9 → 8	0.090	4 → 1	0.022	11 → 5	-0.035
4 → 6	0.086	5 → 2	0.022	4 → 9	-0.040
10 → 11	0.080	11 → 8	0.018	3 → 8	-0.041
5 → 4	0.076	9 → 7	0.017	7 → 4	-0.041
4 → 5	0.074	10 → 2	0.017	7 → 6	-0.051
6 → 4	0.069	11 → 2	0.009	5 → 11	-0.054
2 → 11	0.066	12 → 2	0.008	12 → 4	-0.055
5 → 8	0.062	3 → 4	0.008	7 → 2	-0.067
7 → 8	0.058	2 → 10	0.007	11 → 6	-0.076
6 → 1	0.057	10 → 7	0.005	1 → 7	-0.092
6 → 5	0.055	3 → 6	0.004	1 → 9	-0.100
5 → 7	0.054	12 → 5	-0.002	6 → 10	-0.108
6 → 3	0.050	8 → 5	-0.003	6 → 11	-0.108
2 → 6	0.049	9 → 4	-0.004	7 → 3	-0.111
1 → 6	0.049	4 → 11	-0.004	6 → 12	-0.111
8 → 7	0.043	5 → 12	-0.004	7 → 1	-0.130
10 → 8	0.042	9 → 3	-0.007		

끝으로, <그림 2>에서와 같이 모든 노드에서 녹색의 정적인 자기회귀 효과가 확인되어 각각의 문화적응적 행동은 이듬해에도 유지 및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행동별 기대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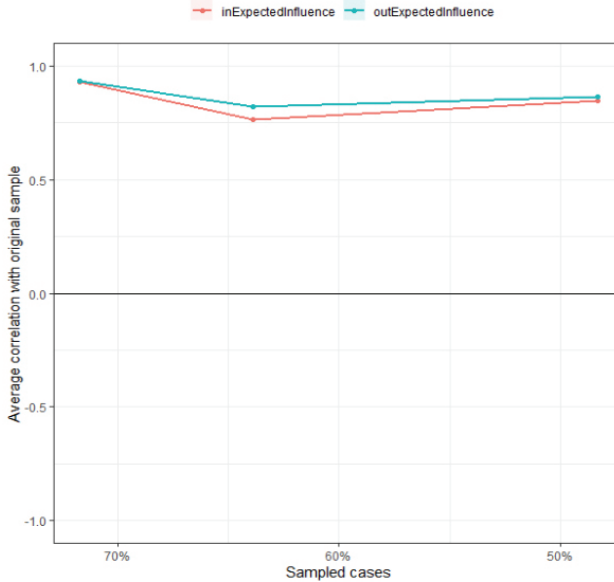
네트워크에서 노드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주고받는지 시계열 관계적 관점에서 보기 위하여 각 노드의 정규화(standardized) 된 기대영향(EI)을 분석하였다. 기대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1차년도 문화적응이 2차년도의 문화적응을 얼마나 주도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즉, Out-EI), 반대로 1차년도의 문화적응에 의해 가장 강하게 주도된 2차년도의 문화적응적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즉, In-EI). 노드별 기대영향은 <그림 3>의 좌단(In-EI)과 우단(Out-E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프의 x축은 정규화 된 기대영향을 나타내고 y축은 Out-EI가 높은 순으로 배열된 노드1부터 노드12까지의 문화적응적 행동을 의미한다. <그림 3>을 바탕으로 노드별 기대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Out-EI는 주변화 유형에 해당하는 노드12번(“나는 종종 한국사람들이나 모국사람들 모두 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한다”)으로 나타났으며($\beta=1.121$), 동화 유형에 해당하는 노드2(“나는 모국사람들보다 한국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다”)가 그 뒤를 이었고($\beta=0.899$), 통합 유형에 속한 노드5(“나는 한국사람들과 모국사람들 모두 나를 귀중히 여긴다고 느낀다”)가 그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0.815$).

한편, 가장 높은 In-EI는 동화 유형의 노드2(“나는 모국사람들보다 한국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다”)인 것으로 나타났고($\beta=2.032$), 그 뒤를 이어 동화 유형에 속하는 노드3(“나는 모국사람들보다 한국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더 편하다”, $\beta=1.413$)과 분리 유형의 노드8(“나는 한국사람들보다 모국사람들이 나를 더 동등하게 대해준다고 느낀다”, $\beta=0.688$)이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높은 In-EI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T1→T2 문화적응적 행동별
Out- 및 In-EI(기대영향)

끝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 네트워크의 상관안정성(CS) 분석 결과, In-EI=0.517, Out-EI=0.517로 나타나 최소 안정성 임계치인 .25를 초과하여 기대영향의 해석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그림 4〉에 제시되었다.



〈그림 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T1→T2 종단적 문화적응 네트워크의 안정성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을 구성하는 행동 하나 하나를 자세히 살피고 이들의 문화적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Berry의 문화적응 네 가지 유형인 동화, 통합, 분리, 그리고 주변화를 개별 행동 수준으로 분해한 뒤 네트워크 분석의 한 유형인 교차지연 패널 네트워크 분석이 실시되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행동이 Berry의 유형적 틀을 넘어서서 맺는 인과적 관계와 특정 문화적응적 행동이 이듬해의 다른 문화적응 행동들을 주도하는 정도가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다. 관련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차지연 패널 네트워크(CLPN) 모델을 적용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종단적 문화적응 네트워크를 추정해 살펴본 결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문화적응적 행동이 서로 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시간의 흐름에도 비교적 특정 유형을 공고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erry의 네 가지 유형에 고착되지 않고 다양한 적응적 행동들이 유형과는 무관하게 뒤섞여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과는 반대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형하 외(2021)의 종단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서 초기에 나타난 문화적응적 유형이 시간이 경과하며 어느 정도 고착되어 자신만의 유형에 머무르는 상황이 전개되어 나타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모든 유형 중에서도 주변화 유형에 속한 문화적응 행동들이 서로 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앞서 언급한 연구 결과와 함께 놓고 본다면, 초기에 주변화된 모습을 보인 다문화가정 어머니일수록 해를 거듭해 가며 주변화된 특성이 유지 및 강화될 가능성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Berry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유추해 본다면, 문화적응 방식의 제약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의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다. 먼저 사회구조적 차원의 경우, 문화적응 전략이 소수자 집단(ethnocultural groups)에서 비롯되는지, 혹은 다수로 구성된 더 큰 사회(larger society)에서 비롯되는지와 관련된 문제로 여기서 소수자 집단은 이주민을 대변하는 한편, 더 큰 사회는 그들이 이주해 온 정주국 사회를 의미한다(Berry 2005: 705; Berry 2016: 23). 통합, 동화, 분리, 그리고 주변화된 문화적응 유형은 이주민의 전략이며, Berry(2005; 2016)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화는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화적응적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그러나, 정주국 사회가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예. 교육, 의료서비스, 직업 등) 개인의 선택을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이주민이 선택하는 문화적응적 전략과 방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선택에 대한 제약(power to decide)이라는 제3의 차원적 요소로 식별되어 문화적응에 영향을 준다(Berry 2005: 706). 이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살펴본다면,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한국 사회에 대해 출신국의 문화적 유산을 유

지하거나 새로운 사회에 참여하려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사회라고 인식하거나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할 경우, 개인의 문화적응적 선택은 구조에 의해 강제될 수 있고 이러한 불일치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 중인 개인에게 원천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Berry 2005: 706). 이에 대해 Ward와 Geeraert(2016: 101), 그리고 Schwartz 외(2010: 251) 또한 구조적 제약이 이주민으로 하여금 선택을 강제할 뿐만 아니라 소속감이나 대등한 참여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저해하는 요인임을 지적한다. 정리하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동안 경험한 사회제도적, 문화적 차별은 이들이 모국 문화나 한국 문화 중 어느 것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함으로써 주변화된 행동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우, 이주민은 정주국에서의 삶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문화적 가치나 규칙, 규범 등이 새로운 사회의 문화와 충돌하게 되며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Berry 1997: 13; Berry 2005: 708). 이때 정주국의 새로운 문화와 규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실패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개인은 반복적인 실패 경험과 낮은 통제감으로 인해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할 수 있다(Abramson · Seligman · Teasdale, 1978; Seligman 1975; Sizova · Ponomareva 2020: 107). 관련해 유현희와 이창식(2014: 13)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희망의 상실을 일으켜 우울감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주변화된 행동은 누적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반복적인 실패 경험이 다문화가정 어머니로 하여금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발생시켜 모국과 한국 문화 그 어느 것에도 참여하려는 의지가 약화된 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주변화 유형으로 식별된 결혼이주여성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더 많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염동문 2019: 274) 이는 다시 과도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통합이 저해되어 더 깊은 분리와 소외로 나아가는 위험요인이 된다(Berry 2005: 709). 이 같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굴레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다문화가정 어머니들로 하여금 빠져나오기 힘든 주변화의 연쇄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에 대해 임은미 외(2010)는 결혼이주여성의 유창한 한국어 능력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외에도 가족이나 남편을 포함한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이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보호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경숙 2017: 405; Kim 2018: 812).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종단적 문화적응 네트워크에서 방향성 및 지지 가치를 확인한 결과, 자기회귀 효과뿐 아니라 교차지연 효과 또한 확인되었다. 이는 곧 어머니들의 문화적응적 행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같은 행동을 강화할 뿐 아니라 다른 행동들에도 정적이거나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며, 따라서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보이는 문화적응 행동이 이듬해 자신들의 문화적응 전반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노드별 기대영향(EI)을 산출한 결과, 주변화 유형에 속하는 노드12(“나는 종종 한국사람들이나 모국사람들 모두 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한다”)의 Out-EI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모국인과 한국인 모두에게 잘 이해받지 못한다”는 경험에 의하여 이듬해 이들이 기울이는 동화적이거나 통합적인 노력이 약화 되기도, 또는 분리적이거나 주변화된 행동이 강화되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사회적 고립과 지지자의 부재가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문화적응에 특히나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는 국제결혼이 지닌 특수성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에 온 결혼이주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본국에서 맺은 사회적 관계망과 거의 단절된 채 한국의 새로운 문화와 관계망에 빠르게 동화될 것을 요구받는데 이때 한국에서 새롭게 형성한 관계의 질이 이주여성들의 기대에 부합되지 않거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실패한 경우, 여성들은 분리의 고통, 즉,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다(주소희·이경은 2014: 5).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고립을 포함한 주변화된 특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심

화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한국으로의 이주 초기에 경험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의 부재를 개입의 초점으로 설정해 제도적 차원에서 매우 선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겠으며, 결혼이주여성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주변화의 연쇄를 끊어내기 위한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제도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고 고립을 심화시키는 큰 걸림돌로 차별적인 취업 시장을 들 수 있는데, 2023년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무직 상태와 시간제 고용은 본국 출신 여성과 비교했을 때 OECD가입국 평균 20%의 격차를 보이며 결혼이주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OECD 2023: 152), 이 같은 현상은 국내도 다르지 않아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적인데다 그나마도 저임금, 불완전고용 시장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육수현 2021: 2). 더욱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본 연구 대상과 같이 발달적 전환기에 접어들어 양육자의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이주민이라는 소수자성과 어머니로서의 역할 요구로 인해 취업 시장에서 이중 제약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취업 정보의 제공과 안정적인 고용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절실하겠다(윤자호 2025: 25).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 및 종사자들의 실천적 노력의 예시로는 다음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을 조사한 김나영(2023)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여성들은 스스로 알고 지내던 친구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이주민 커뮤니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한국인 및 다른 이주민들과 활발한 교류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 한국인도 폭넓게 참여 가능한 다문화 관련 캠페인 또는 행사의 개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지역사회 연결망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성장한 연결망은 다시 그들의 문화적응 발달에도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 및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의 상담사 역시 내담자의 문제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고 사회정의 상담가로서 역량을 강화한다면, 관련 입법 및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결혼이주여성 또는 다문화가정의 내담자와 직접 교류하며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정지선 2020: 229).

국제결혼과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장유민 외(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제결혼에 대해 한국에 비해 저개발 된 국가의 신부를 데려오는 일종의 ‘매매혼’으로 보는 관점이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앞서 김현숙과 김옥녀(2017)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은 그들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이주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응당 가부장적 성별 분업에 종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시선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해 상술한 바와 같이 모국 문화와 한국 사회 어느 곳에도 참여할 의지를 잃어버리는 주변화된 모습을 강제할 수 있다. 어머니의 주변화된 문화적응적 행동은 자녀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도 영향을 미쳐 청소년으로 전환되는 중학생 시기에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이소연 2018: 192).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적응 곤란은 이처럼 세대를 거듭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다문화가정의 한국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체 혼인 건수 대비 국제결혼 비율의 증가 추세나 국가 주도 하의 이민자 확대를 한국의 고질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 줄 요술 지팡이로 대하는 자세는 적절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이주민에 의한 새로운 문화의 유입이 우리 사회에 불러올 파장을 인식하고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입법관계자,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은 학력, 한국어 능력, 가구의 경제 수준, 배우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변인들로부터 영향을 받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보이는 문화적응적 행동 간 인과적 관계를 추론하고자 Berry의 문화적응 유형 12개 문항만을 CLPN 모델에 투입해 제한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개인 내적 요인 등으로 구분한 가외적 요인을 연구 목적에 따라 분석에 투입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 문화적응의 발달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의 문화적응 양상이 어떤 역동을 보이며 발달하는지 살펴보았다. 다만, 매우 장기적으로 변화하며 발달해 나가는 문화적응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가 장기적인 문화적응 궤적의 변화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심리적 상태의 변동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더 오랜 기간에 걸쳐 발달 궤적을 추적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Auto Regressive Cross-Lagged Model)과 같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사용이 '유형화'한 문화적응의 발달을 다시점에 걸쳐 종단적으로 살펴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신 네트워크 모델링 기법인 교차지연 패널 네트워크(CLPN) 모델을 사용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적 행동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Berry의 문화적응 유형은 새로운 정주국에서 이주민이 경험하는 적응과 관련된 고전적인 개념틀로서 그간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수차례 분석되어 왔지만, 초기에 제안된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에 완전히 들어맞지만은 않은 혼재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 문화적응의 역동적 발달을 양상적인 차원에서 매우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완만한 적응을 돕는 공공 서비스 분야 및 사회 제도적 제언으로 쓰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강지현(2014). 후기 아동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미치는 아동의 성별, 지각된 학업성적, 부모, 또래의 영향, <초등상담연구> 13(1), 155-173쪽.
- 구양미(2021). 인구 변화와 도시 쇠퇴의 지역 불균형: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시사점, <국토지리학회지> 55(3), 301-320쪽.
- 김나영(2023).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양상 및 지역사회와의 연결성 강화 방안, <한국사회복지교육> 61: 85-120쪽.
- 김현미(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70, 10-37쪽.
- 김현숙 · 김옥녀(2017). 한국인의 배타적 태도에 대한 이주민 반응에 관한 연구-결혼 이주여성들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0(2), 145-191쪽.
- 동아일보(2025.05.24.). '내 아이가 살기 어려운 나라'에 이주할 부모는 없다[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523/131669097/1>(검색일: 2025.08.31.).
- 서울경제(2024.06.22.). '육아휴직급여 250만원 · 특공1+1'... "돈 준다고 애 낳나" [송중호의 쑥쑥통계]. <https://www.sedaily.com/NewsView/2DAK9M59YP> (검색일: 2025.08.29.).
- 유현희 · 이창식(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농촌지도와 개발> 21(3), 1-23쪽.
- 육수현(2021). 경제행위자로서 결혼이민자. 이민정책연구원 Issue Brief.
- 윤자호(2022).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와 현황-결혼이민자(F-6)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Issue Paper.
- 염동문(201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종단적 변화양상과 변화양상별 영향요인, <복지상담교육연구> 8(2), 263-282쪽.
- 이소연(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9(1), 179-208쪽.
- 이현 · 이경원(202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과 분류 예측요인 탐색연구-잠재프로파일과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하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2), 171-193쪽.
- 이형하 · 윤진미 · 한지윤(2021).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과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간 종단관계 검증: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9(10), 453-467쪽.
- 이화선(2015). 한국 다문화정책의 편향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지위, <한국융합인문학>

- 3(2), 7-24쪽.
- 임양준(2017). 한국 거주 외국인의 미디어 이용행태가 문화변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0(1), 79-114쪽.
- 임은미 · 정성진 · 이수진(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상담학연구> 11(3), 957-973쪽.
- 장유민 · 이재림 · 그레이스정(2021). 소셜 빅데이터에 나타난 국제결혼 및 다문화: 토픽모델 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39(4), 83-99쪽.
- 장희선(2023).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의 정서 · 행동문제 잠재전이분석과 부모 양육 행동, 사회적 관계의 영향요인 검증, <한국교육문제연구> 41(3), 49-82쪽.
- 전경숙(2017).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관련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6(4), 402-411쪽.
- 정지선(2020). 다문화 및 사회정의 상담을 위한 상담자 교육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225-248쪽.
- 주소희 · 이정은(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서적고립 및 소외와의 관련성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7(1), 45-64쪽.
- 통계청(2024).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_____(2024). 2023년 출생 통계.
- _____(2024). 2024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 하혜주(2019). 아동학대 유형과 우울 증상 양상의 관계: 네트워크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0, 251-277쪽.
- Abramson, L. Y., Seligman, M. E., & Teasdale, J. D.(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1), 49-74.
- Barry, D. T.(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erry, J. W.(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 Berry, J. W.(2016). Theories and Models of Acculturation. *The Oxford Handbook of Acculturation and Health* (pp. 15-28). Oxford University Press.
- Chen, H. H., Hwang, F. M., Tai, C. J., & Chien, L. Y.(2013).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acculturation, social support, and postpartum depression symptoms among marriage-based immigrant

- women in Taiwan: a cohort study.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5, 17-23.
- Choi, J., Miller, A., & Wilbur, J.(2009). Accultur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 immigrant women.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1(1), 13-19.
- Coatsworth JD, Maldonado-Molina M, Pantin H, Szapocznik J.(2025). A person-centered and ecological investigation of acculturation strategies in Hispanic immigrant yout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3, 157-174.
- Csardi, G., & Nepusz, T.(2006). The igraph software package for complex network research, *InterJournal. Complex Systems*, 1695, 1-9.
- Epskamp, S., Borsboom, D., & Fried, E. I.(2018). Estimating psychological networks and their accuracy: A tutorial paper. *Behavior Research Methods*, 50(1), 195-212.
- Epskamp, S., & Fried, E. I.(2015). Package 'bootnet'. *Bootstrap methods for various network estimation routines*, 5(0.1).
- Epskamp, S., Cramer, A., Waldorp, L., Schmittmann, V., & Borsboom, D.(2012). Network visualizations of relationships in psychometric data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8(4), 1-18.
- Friedman, J., Hastie, T., & Tibshirani, R.(2010) Regularization Paths for Generalized Linear Models via Coordinate Descent.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33(1), 1-22.
- Funkhouser, C. J., Chacko, A. A., Correa, K. A., Kaiser, A. J. E., & Shankman, S. A.(2021). Unique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symptoms of psychopathology in youth: A cross-lagged panel network analysis in the ABCD study. *J Child Psychol Psychiatry*, 62(2), 184-194.
- Giang, MT., & Wittig, MA.(2006). Implications of adolescents' acculturation strategies for personal and collective self-esteem.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2, 725-739.
- OECD(2023).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3*, OECD Publishing, Paris,
- Seligman, M. E. P.(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Freeman.
- Schwartz, S. J., Unger, J. B., Zamboanga, B. L., & Szapocznik, J.(2010).

- Rethinking the concept of acculturation: implica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The American psychologist*, 65(4), 237-251.
- Silva, P., & Pereira, H.(2023). Promoting Psychosocial Well-Being and Empowerment of Immigrant Women: A Systematic Review of Interventions. *Behavioral sciences*, 13(7), 579.
- Sizova, I. N., & Ponomareva, I. V.(2020). Developing ethnic identity as a condition of foreign students'learned helplessness correction. *European Proceedings of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s*.
- Kim, J. S.(2018). Social support, acculturation stress, and parenting stress among marriage-migrant women.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32(6), 809-814.
- Park, J.(2022). Acculturation trajectories of South Korean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ir immigrant mothers and its association with adolescent adjustments.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16(1), 51-67.
- Ren, H., Cheah, C. S. L., Tahseen, M., & Zhou, N.(2021). A person-centered examination of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among Chinese and Korean immigrant mothers in the United States. *Cultur Divers Ethnic Minor Psychol*, 27(1), 95-106.
- Shang, B., Bian, Z., Luo, C., Lv, F., Wu, J., Lv, S., & Wei, Q.(2024). Exploring the dynamics of perioperative symptom networks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a cross-lagged panel network analysis. *Supportive Care in Cancer*, 32(1), 62.
- Tahseen, M., & Cheah, C. S.(2012).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the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a sample of immigrant Chinese mothers in the US. *Int J Behav Dev*, 36(6), 430-439.
- Ward, C., & Geeraert, N.(2016). Advancing acculturation theory and research: The acculturation process in its ecological context.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8, 98-104.
- Wysocki, A., Rhemtulla, M., van Bork, R., & Cramer, A.(2022). Cross-Lagged Network Models. OSF. <https://osf.io/9h5nj>
- Zainal, N. H., & Newman, M. G.(2023). A cross-lagged prospective network analysis of depression and anxiety and cognitive functioning components in midlife community adult women. *Psychol Med*, 53(9), 4160-4171.

필자 소개

성 명 한승희
소 속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역곡동)
전자우편 hsh0319@hanmail.net

성 명 유금란
소 속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역곡동)
전자우편 kyu@catholic.ac.kr

| Abstract

Longitudinal changes in acculturation of marriage migrant mothers - A cross-lagged panel network analysis -

Han, Seung-hui · Yu, Kum-la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longitudinal changes in cultural adaptation among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Berry's theoretical framework. Data from the 2019 and 2020 waves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were analyzed, focusing on migrant mothers of fourth-grade children. A cross-lagged panel network (CLPN) model was applied to assess acculturative strategic behaviors over time. The results revealed that migrant mothers' acculturative strategic behaviors in the first year exerted longitudinal and reciprocal influences on their behaviors in the second year, while largely maintaining the structure of Berry's acculturation typology. The Expected Influence (EI) of each node was calculated. The marginalized behavior ("I find that both native people and Korean often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me") showed the highest EI, indicating the strongest impact on acculturation outcomes in the second year. By identifying subtle adaptation strategies, this study challenges rigid typological approaches and highlights the dynamic nature of cultural adaptation.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Migrant Mother, Acculturation, Social Network Analysis, Longitudinal Analysis

투고일 2025. 10. 02 / 심사일 2025. 11. 08 / 게재확정일 2025. 11. 17

www.kci.go.kr

